



5

AB 패밀리

사회 문화적 디자인 수업에서는 세번째로 친구나 가족 혹은 지인을 브랜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우리 가족이 모두 혈액형이 AB형 이라는 것을 떠올려, 가족을 브랜딩 해보자고 결심했다.

1. 인터뷰

우리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처음에는 우리 가족이 전부 AB형 이라는 사실이나, 가족들이 각자 하나씩 두드러지는 단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자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우리 가족의 모습은, 강점과 단점 한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터뷰와 피드백을 통해 깨달은 점은, 가족들은 각자의 톤과 목소리,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생활과 가정적 생활에서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다. 그런데 서로 각기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양하다”라는 속성에 일단 집중해보았다.

AB형

웃음

불완전함

2. 키워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번 브랜딩을 통해 내가 나 타내고자 하는 우리가족의 모습은 어떤것인가 ?

그래서 다양하다? -> 자유롭게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변형가능한, 아메바, 공존하는”이라는 키워드를 뽑아 무드보드를 만들고, 시각화를 진행해보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자유롭게 변한다는 게 아니었다. 그냥 각자가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결론적으로 아메바로 가족들의 일화를 만화로 그리는 것... 도 재밌었지만, 그보다 더 나은 키워드나 시각물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았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가족들이 다 AB형 이라는 점, 서로서로 개그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점이었기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오빠와의 인터뷰에서는 오빠가 ‘미스 리틀 션샤인’이 우리 가족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했다. 더하여 나는 영화 ‘굿윌헌팅’에 나온 장면들을 통해 우리 가족을 어떤 키워드로 묶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두 영화에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을 통해 단단해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대화를 적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서로에게 개그를 칠 때는 서로의 실수나 바보같은 짓들이 드러날 때였다. 예를 들면 내가 늦게 일어나서 어딘가에 지각했을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아빠가 옆에서 너 이불 속에서 생각할 게 많았구나? 하는 식으로.

미스 리틀 션샤인의 가족들 또한 서로가 실패하거나, 바보같은 모습을 보일 때, 그것에 대해 비난하기도 하지만 기다리고 위로하며,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즉 서로의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족 또한 서로의 불완전함을 개그로 재밌게 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시각화

**키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작업물은 무엇인가?**

불완전함, 웃음, AB형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우리 가족들의 일화 몇개를 정리해 시각물로 표현하자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 불완전함,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일화. 그리고 이 일화들은 긴 일화보다는 집 안에서 일어나는 짧은 대화들이 많았다. 아무래도 평일에는 다들 밖에 있고, 만나는 시간은 주말이나 평일의 아침, 저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일화를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까? -> 만화나 영상 등등의 방법이 존재한다.

여러가지 영상 중에서, 내가 가진 기술력으로 구현할 수 있으으면서 새로운 방법을 쓸 수 있는 “푸콘 가족”이라는 시트콤을 래퍼런스로 삼았다. 푸콘가족은 마네킹 사진을 찍어 목소리를 덧입혀 컷컷으로 구성된 가족 만화이다. 그리고 “가족”을 주제로 한 만화, 영상물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래서 다시 무드보드를 구성해보았다.

약간은 어설픈 듯한 느낌의 타이포와, 어색하게 인간을 따라하는 거 같은 느낌의 인형들... 푸콘 가족에서는 어색함을 드러내며 웃음을 유발했다. 인간과 비슷하지만 인간보다 불완전한 마네킹과, 인위적인 목소리들이 푸콘 가족의 중심 소재라면, 나도 나의 방식으로 어색함을 드러내며 가족의 불완전함과 웃음을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전반적으로 ‘어색함’을 드러내는 것이 가족의 불완전함을 재미있게 잘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들을 가져와봤다.

또한 이 어색함을 잘 살려서 영상에서도 어색함이라는 형식을 기반으로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 굿즈를 뽑아내기로 했다.



일단 필요한 것은

1. 가족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재미있게 받아
치는 일화가 구현된 영상.

푸른 가족을 래퍼런스로 잡아 영상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특유의 인간을 따라한 거
같은 어색한, 키치하고 어설픈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시네마 4d로 캐릭터를 제작해
보고자 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어떻게 말끔한 톤을 잡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고, 집 배경을 시포디로 만들고, 가족들을 캐릭터화 하지 말고 크로마키로
직접 따서 영상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2. 가족들 굿즈

(1) 기념일 티셔츠

어떤 굿즈를 만드는 게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모던패밀리에서 할아버지가 가족들의
기념일마다 티셔츠를 만들던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가족 일화>를 바탕으로
장난끼있는 티셔츠를 만드는 것이 재밌겠다고 생각했다.

(2) AB 패밀리가 좋아하는 라면

더하여 첫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라면, 간식, 다이어트가 주를 이룬다. 만화에서 보면
그림 속 인물들이 맛있게 먹는 걸 현실에서 팔기도 하니까... 도라에몽 처럼! 가족
굿즈에 라면이 들어가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Goods!



기념일 티셔츠



컵라면 패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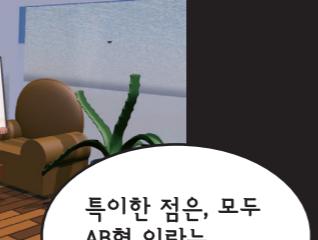
episode!

영상은 여러개의
짧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핵심
에피소드를 가져와
만화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먼저 당찬
우리 엄마,



그리고 멋진 저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이한 점은, 모두
AB형이라는
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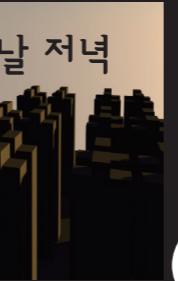
유진아 ! 얼른 일어나
! 학교 늦었다고
몇번을 말해 ?

뭐?? 아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유진이 너...
이불속에서 생각할게
많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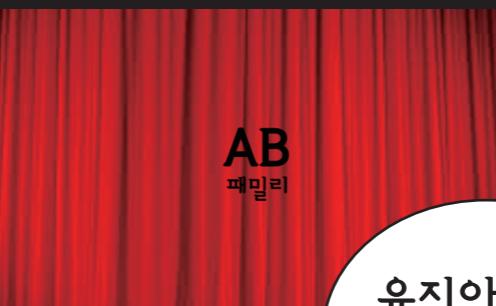


에피소드 2



야 유진아, 라면
끓이면 노나 먹나?

기다리고 있었엉ㅋ



유진아. 라면
끓이면 먹나?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야!
절대 안먹어.



너 이파가
달라고
하기만 해봐...

